12. 병사공파(兵使公派)

명원 明遠, 9세, 병사공파 중시조 5세 계룡의 증손(曾孫),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table>
<tr><th>1세</th><th>2세</th><th>3세</th><th>4세</th><th>5세</th><th>6세</th><th>7세</th><th>8세</th><th>9세</th><th>10세</th><th>11세</th><th>12세</th><th>13세</th><th>14세</th></tr>
<tr><td rowspan="6">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憲公경헌공
고려의종,명종대</td><td rowspan="6">德秀
덕수
상서공
兵部尚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td><td rowspan="6">元烈
원렬
太 僕 尹
태복윤

고 려 충
렬왕대</td><td rowspan="6">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td><td rowspan="6">嶔(금)
左贊成
(좌찬성)</td><td>1
致龍(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td><td colspan="8">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판관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공파</td></tr>
<tr><td rowspan="5">2
繼龍(계룡)
令同正
영동정</td><td rowspan="5">浩明(호명)
彰 信 校 尉
(창신교위)</td><td rowspan="3">環(환)
郎將
낭장
세종23년
1441년生</td><td>仁亨인형
主簿주부</td><td>壽수
訓鍊僉正
훈련첨정</td><td colspan="4">僉正公派첨정공파</td></tr>
<tr><td>義良(의량)</td><td colspan="5">義良公派의량공파</td></tr>
<tr><td>仁良(인량)</td><td>禹績(우적)
義州府尹</td><td colspan="4">府尹公派부윤공파</td></tr>
<tr><td rowspan="2">珍(진)
進士
진사</td><td rowspan="2">明遠(명원)
兵馬節度使
병마절도사
세종 1440</td><td rowspan="2">尙文(상문)
啓山(계산)
保功將軍</td><td colspan="4">保功將軍公派보공장군공파</td></tr>
<tr><td rowspan="2">耋질
版圖郎
판도랑</td><td rowspan="2">경經
進士
진사</td><td rowspan="2">광소
光紹
文承旨
문승지</td><td>1
덕린
德麟</td><td>1
징澄</td></tr>
<tr><td>瑞龍(서룡)
左丞宣
죄승선</td><td colspan="8">左承宣公派좌승선공파(서룡공)</td><td>2.
仲麟
중린</td><td>2
浩호
2규
逵</td></tr>
</table>

조선 세종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함경도수륙병마절도사(咸鏡道水陸兵馬節度使) 벼슬을 하신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병사공사적(兵使公事蹟)에 의하면 (요약)

1429년(세종世宗11)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시고 함경도 수륙병마절도사(水陸兵馬節度使)를 역임하셨다. 원래 천품(天稟)이 영특(英特)하시고 강직하시며, 또 기골이 장대하시다. 국가에 변란(變亂)이 있게되면 주상(主上)을 밤낮 세 차례씩 찾아뵈옵고 그 방어책에 대한 명을 받아 엄밀히 봉행(奉行)하여 변방을 숙청(肅淸)하시고 평화스럽고 무사하게 하였다. 노후(老後)에 퇴임하시어 인동가라촌장(仁同加羅村庄)에서 은거하시며 서적과 벗하시어 자오(自娛)하시고 가정의 의례를 조정(朝廷)의 의례에 준하여 시행하시어 항상 엄숙하게 지내시다가 천명(天命)에 의하여 서거하셨다. 묘는 선산(善山) 몽대면(夢大面) 오사동(烏沙洞) 백호산(白虎山) 유좌원(酉坐原)에 모셨으나 묘소가 병란중(兵亂中) 자손들이 모두 각처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겸(兼)하여 빈한하였으므로 묘소도 실전(失傳)하게 되고 소장하였던 서적조차 유실되었으며, 또한 묘지(墓誌;묘하墓下에 묻은 지석地石)와 비석(碑石)도 여러 해가 지나 풍화작용으로 자연히 퇴폐(頹廢)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소 위에 투장(偸葬)하여 그 형상조차 찾아보지 못하게 된 실정이다.(중략)

서기 1847년(숭정기원후4정미崇禎紀元後四丁未)에 본손(本孫)의 성주(星州)의 상익(商翼)과 경산(慶山)의 학래씨(鶴來氏)가 公을 추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전(前)의 가승(家乘)과 고첩(古牒)에 의거하여 묘소)를 찾게 되어 투장(偸葬)한 것을 철거하였으며, 따라서 통로도 다시 내고, 상석(床石)도 마련하여 세웠다. 이 일은 외손(外孫) 윤치응(尹致膺, 1794-1856, 나주목사, 동부승지 역임, 윤두수의 후손)의 힘을 얻어서 성사(成事)한 것이다.(후략)
영천대창면강회于永川大昌面江回) 유좌원(酉坐原)에 이장(移葬)되었다
1924년(갑자년甲子年 봄)

십칠세손(十七世孫) 종철(鍾澈) 읍혈근서(泣血謹書)

九世 兵馬節度使 諱 明逵과 配貞夫人 坡平尹氏의 墓(合封)와 墓碑
所在地 :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 강회리

명원의 묘소와 묘비

35.兵使公事蹟

公諱明遠卽我 鼻祖侍郎公九世孫令同正公諱繼龍曾孫也 世宗朝
十一年己酉登武科屢遷至嘉善大夫行咸鏡道水陸兵馬節度使公天
姿英毅氣宇恢廓風雲廟堂晝日三接受 命禦侮鎖鑰嚴密邊陲肅淸
晏然無事及其晩暮退休隱居於仁同加羅村庄以書籍自娛閨門雍睦
有朝廷之禮焉以天年終 命葬于善山夢大面烏沙洞白虎麓酉坐之
原噫粵自龍蛇兵燹之後子姓離散零替家藏文籍盡爲遺失墓誌碑石
歲久剝落後被冒葬者之所毁破行路爲之咨嗟其在雲仍云如之何哉
往在 崇禎紀元後四丁未星州商翼慶山鶴來氏慨然追慕憑信於家
乘古牒而尋得墓所改修隧道更置床石而掘去偸塚盖由外裔尹致膺
之力也噫公之當世勳業照耀左海而文獻莫徵故老傳誦徒有口碑至
今不泯烏得免墮地之責也玆當修譜之日略叙顚末以俟後日參考焉

移葬于永川大昌面江回之箔山茅堤內酉坐原

歲在甲子春

十七世孫 鍾澈 泣血謹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징澄	용담 用紞	건健	팽로 彭老	두년 斗年	흡翕	태소太素 系子 生父즙(濈) 송암공	우서 禹瑞	덕룡(德龍)									
					즙濈	태소太素 출계흡(翕)											
			팽익 彭益	극년 克年	추명 秋明	귀영貴榮	천발 天潑	덕채(德采) 첨지중추부사 1681(1741)生									
浩 호	應機 응기	希文 희문	孟景 맹경	弼弼	尙立 상립	厚發 후발	杰걸	時泰 시태	天輔 천보	思國 사국	2 聖龜 성구	1 岐鳳 기봉	1 載錫 재석	1 英柱 영주	1 渭斤 위근	1 鏡柄 경병	1 俊鎔 준용
											3 聖寬 성관	2 찬봉燦鳳 용인군수	1 재후載厚 예식원 주사	鎰일			
													2 載斗 재두	1 鈺 옥	1 泳福 영복	1 晳 석	1 度恩 도은
															2 泳洪 영홍	1 倉賢 창현	1 娥榮 아영
2규 淦	1 孝徵 효징	1 聖龜 성구	1 大笠 대립	1 弘禮 홍례	1 斗天 두천	1 汝樞 여추	4 禹璜 우황	1 榮再 영재	1 重國 중국	1 光善 광선	1 錫周 석주	1 鎭甲 진갑	2 輦涉 연섭	1柄一 병일			

태소 太素, 20세, 명원의 11세손 송암공(松岩公)

1637년(인조 15년)에 태어났다. 자(字)는 도광(道光) 호는 송암(松岩)이다. 천성이 후덕하고 문장이 웅건하며 후학을 장려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천성호후문사웅건장진후학인추종장상재세덕록天性護厚文詞雄健奬進後學人推宗匠詳載世德錄)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 1706년에 돌아가셨다

송암공기사(松巖公記事)에 의하면 (요약)

천품(天稟)이 근면하시고 명랑하시며 순수하시다. 효우(孝友)가 돈독하시어 삼형제가 한 이불을 덮고 지냈으니 이 얼마나 화목한 일이었으며, 몸 갖기를 항상 조심스럽게 하시어 세상사람들이 어질고 착한 선비라고 칭송하였다.

문장이 뛰어나서 향시(鄕試)에 입시(入試)하여 그 방명(芳名)을 날리었다. 기후(其後) 여러 번 궁(宮)에 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음은 사도(師道)에 두시고 뜻은 성학(聖學)에 간절하여 여러 학동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천하고 귀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기르치시는데만 힘쓰시었다. 백씨(伯氏)와 중씨(仲氏)와 힘을 합쳐 배우러 오는 학동들을 교도(敎導)하는데 근면
하고 그 문하에서 큰 벼슬아치를 많이 배출하셨다. 빈한(貧寒)한 가정에서도 글 강론(講論)함을 게을리 않으시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 글을 숭상(崇尙)하는데 큰 공이 있으셨으나 하늘이 빨리 부르게 되어 문하생 학도(學徒)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으며 公의 유고(遺稿)만 세상에 전하셨을 따름이다.

아! 슬프도다. 西紀 1706년(정해丁亥) 7월29일에 서거하시니 향년(享年) 71세요. 청도(淸道)의 송동안산(松洞案山) 유좌(酉坐)에 장사(葬事)하였다. 배(配)는 김해김씨(金海金氏) 분성군(盆城君)의 후손이니 1642년(임오壬午)에 태어나 서기 1686년(병인丙寅) 5월22일에 사망하였으니 향년(享年) 45세요 우곡(愚谷) 곡성동(曲城洞) 자좌원(子坐原)에 장사(葬事)하였다. 장남은 우서(禹瑞)이니 시율(詩律)로 국내에 이름이 높으며, 차남의 휘(諱)는 우장(禹璋)이니 필법(筆法)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니 연벽(聯璧)의 재명(才名)으로 가업을 이어받고 문생중(門生中)에 군수(郡守) 정이규(鄭以規)와 진사(進士) 박상고(朴尙告)와 군수(郡守) 정이운(鄭以雲)과 진사(進士) 손만태(孫萬泰) 등이 스승을 높이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자는 글을 지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는 일이로다. 이제 현씨족보(玄氏族譜)를 편찬(編纂)함에 있어서 公의 행적을 빼 놓을 수 없기에 대강 기록한다.

1747년(숭정후崇禎後정묘) 밀양후인(密陽後人) 박중술(朴重述)은 삼가 기록한다.

송암공기사(松巖公記事) 원문

50.松巖公記事

公諱太素字道光號松巖生于　崇禎丁丑六月十一日天姿謹厚而明粹孝友純至兄弟三人共被一衾敦睦成風持身誠敬世稱善士餘事文章人推宗丈連登鄕解早擅芳名屢入澤宮數奇不中心存師道志切聖學訓迪羣蒙不論尊卑未嘗無誨伯氏旣唱仲氏又酬牖導來學提撕勸勉名卿達官鴻匠碩儒多出門下簞瓢空講論不懈樂育人才有功斯文天不假年奮之斯速門生學徒失其依附褒奬之牒行于世而已卒于丁亥七月二十九日享年七十一葬于淸道之松洞案山酉坐原配金海金氏盆城君之後也生于壬午五月二十一日卒於丙寅五月二十二日享年四十五先公而歿葬于愚谷曲城洞子坐之原男長曰禹瑞以詩鳴於國次曰禹璋以筆鳴於世聯璧才名亦襲家業其後門生文郡守鄭以規進士朴尙古武郡守鄭以雲進士孫萬泰等有尊師祭祠之文而亦未果焉可勝惜哉今於玄氏譜成日不可無公蹟於其譜故略記之

崇禎紀元後丁卯

密陽後人 朴重述 謹識

덕채 德采, 22세, 명원의 13세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서기1681년(숙종肅宗7년)에 태어났다. 영조(英祖)34년(1758년)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벼슬을 하신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첨지중추부사현공행적(僉知中樞府事玄公行蹟)에 의하면 (요약)

公의 휘(諱)는 해적(海迪)이었는데 또 다시 휘(諱)를 덕채(德采)로 개명(改名)하시고, 자(字)는 여안(汝安)이시니 서기 1741년(영조 17년) 8월2일에 출생(出生)하시어 1822년 (건륭乾隆임오)에 향년(享年) 82세로 생(生)을 마치시었다. 묘(墓)는 대구부(大丘府) 동상면(東上面) 용덕리(龍德里)에 있으시다. 희(噫)라 公이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하나 성품이 검소하고 분수를 지키어 집안의 화목에 힘쓰며 남을 대할 때에는 근후(謹厚)하여 세상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라 칭찬을 마지않았으나 항상 신병(身病)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노후에 자손들이 장성하여 승순(承順)하는 마음으로 봉양하므로 평생토록 마음이 편하시고 신체가 강녕(康寧)하시며 정력(精力)이 건장(健壯)하시어 전원(田園)에 우유(優遊)하시고 희락(喜樂)을 자유롭게 하시게 되니 1815년(을해년乙亥年)에 도신(道臣)이 정부(政府)에 품의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라는 높은 벼슬에 임명되시어 장수(長

壽)와 덕과 벼슬을 다 갖추셨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이 해 정월에 후통(喉痛;목병)이 있어 오래동안 고통중(苦痛中) 담천(痰喘;천식)이 되자 자제들이 삼제(蔘劑;인삼약)을 드리고자 한즉 公은 「내가 약질(弱質)로 80의 수(壽)를 하였으니 천명이로다. 이 어찌 약으로 고치리오」하고 자제에게 정침(正寢)에 자리를 깔게 하라고 명하여 자는 듯 서거하시니 公께서는 오복(五福)을 수(壽)와 부(富)와 강녕(康寧)과 호덕(好德)과 고종명(考終命)을 겸비하시니 고금을 통하여 따른 사람이 드물었다.
아! 아름답도다. 내가 公과 인아(姻婭;처당(妻堂)의 친분이 있어 公의 덕행을 사모(思慕)하므로 公의 집으로 자주 찾아뵈어 公의 평소에 하시던 일을 잘 알게 되어 그 시종(始終)의 만일(萬一)을 살피어 감히 망졸(妄拙)함을 무릅쓰고 이에 기록하노라.

1942년(임오壬午) 8월3일에 파평후인(坡平後人) 윤도항(尹道恒) 근기(謹記)

첨지중추부사현공행적(僉知中樞府事玄公行蹟) 원문

53.僉知中樞府事玄公行蹟

公諱海迪改諱德采字汝安生于康熙辛酉八月初二日卒于乾隆壬午五月十一日葬大丘府東上龍德里享年八十有二噫公早背所怙家且貧窶備經險釁而雅性儉素安分自守治家敦睦待人勤厚世所稱焉素患心痛積年沈痼百藥罔效謝絶人世六旬之後子枝長成承順奉養甘溫之奉供庶幾盡心而又幸宿疾勿藥自瘳數十年來心安體康精力益健優遊田舍傲樂自適歲在乙亥以年老道臣抄 啓得除 天爵古所謂齒也德也爵也公於是焉備矣豈不休哉及夫今年正月猝患喉痛涉月彌留轉成痰喘子弟欲進蔘劑則公曰吾以弱質致耋髦之壽命乃在天豈藥餌所可益哉遂不使進但用緩疾之劑及其疾革命子弟等修正寢席似睡而逝噫古所謂曰壽曰富曰康寧曰攸好德曰考終命公於是焉兼之往古來今罕見其儔猗歟休歟寀僚於公有姻婭之分而慕公之德源源往古來於公家深知公之平舊矣略述其始終之萬一玆敢忘拙以記

歲在壬午八月三日

坡平後人 尹道恒 謹記

渭斤 위근, 29세.

일명 영한(泳闌), 호 일평(一平), 법명 홍운(弘雲), 1933년계유(癸酉)생, 교감, 훈장 석류장 수상, 신촌외국어학원 이사장, 대종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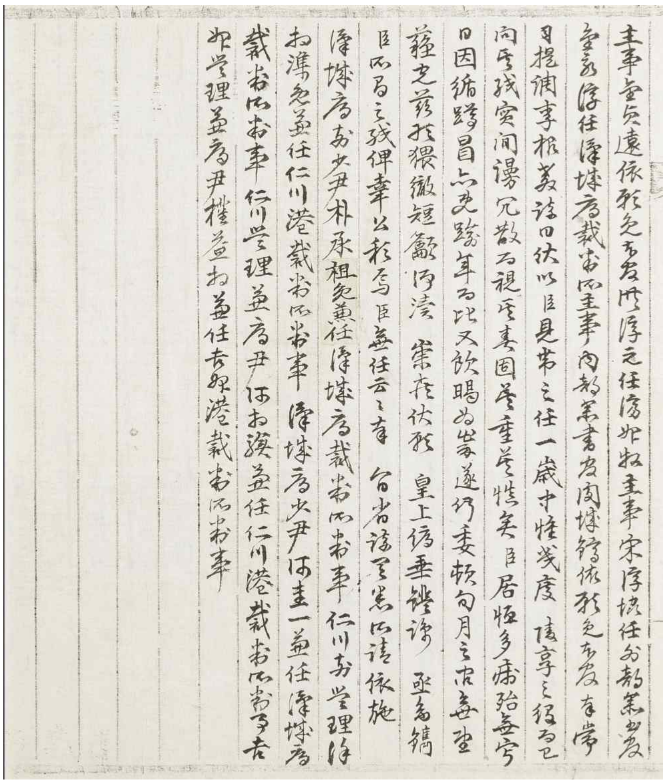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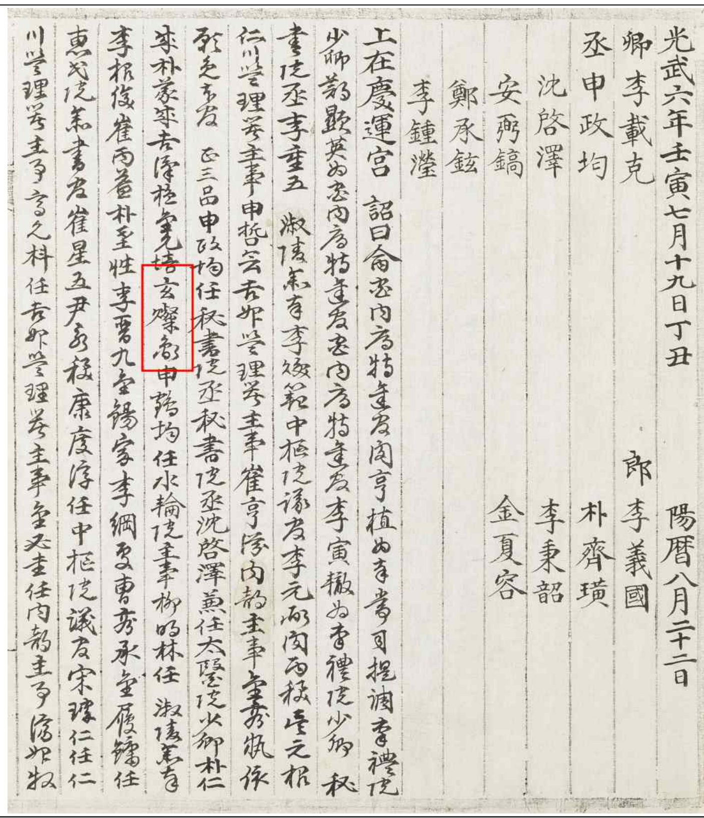
경병 鏡柄, 30세, 渭斤(위근)의 아들, 호 존선(尊船), 법명 계진(戒眞), 1962년생, 서울대 대학원졸, 29회 행정고시 합격, 한국지식문화재단 이사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보위원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대종회 고문, <한국인은 위대한 한국을 원한다>, <독도이어도중국만사유럽만사> 외 다수 저술. 부인 신윤주(高靈申閏株)부(父)정휴(貞休), MBC전무 한국방송위원

찬봉 燦鳳, 26세. 대한제국 관료, 숭의랑, 용인군수, 곤양군수

조선 말기의 문신 학자. 대한제국기 숭의랑, 용인군수, 곤양군수 등을 역임한 관료. 자는 문가(文可)이며, 호는 남강(南岡)이다.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지낸 현성관(玄聖寬)의 아들로 1861년(철종 12년)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산장씨(牙山蔣氏)로 장학로(蔣學魯)의 딸이다. 10세에 이미 시를 지었으며, 의서에도 통달하였다. 1902년 수륜원주사(水輪院主事)로 임명된 뒤 태의원전의(太醫院典醫)·승의랑(承議郎)을 역임하였다. 용인군수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불망각(不忘閣)이 세워지고, 현찬봉의 공덕을 찬양한 「만인산송(萬人傘頌)」이 만들어졌으며, 치적을 기록한 목비(木碑)가 39곳에 세워졌다고 한다. 1906년에는 곤양군수(昆陽郡守)로 전보되었다. 민영환(閔泳煥)·송병선(宋秉璿)·최익현(崔益鉉) 등 순국충혼에 제문을

올린 일과 상소문·서간문 등에 우국충정의 심원함이 잘 나타나 있다. 1918년에 돌아가셨다. 저서로는 『남강집(南岡集)』 4권이 있다.

참고문헌/『남강집(南岡集)』

<table>
<tr><td colspan="2">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9년 임인 > 7월 19일 > 최종정보
고종 39년 임인(1902) 7월 19일(정축, 양력 8월 22일)
39-07-19[04] 비서원 승에 정3품 신정균을 임용하였다</td></tr>
<tr><td>○ 정3품 신정균(申政均)을 비서원 승에 임용하고, 비서원 승 심계택(沈啓澤)을 겸임 태의원 소경에 임용하고, 박인성(朴仁成), 박의성(朴義成), 길한식(吉漢植), 김윤배(金允培), 현찬봉(玄燦鳳), 신학균(申鶴均)을 수륜원 주사(水輪院主事)에 임용하고, 유명림(柳明林)을 숙릉 참봉에 임용하고, 이근준(李根俊), 최병익(崔丙益), 박기성(朴基性), 이진구(李晉九), 김석종(金錫宗), 이강하(李綱夏), 조용승(曺容承), 김이용(金履鏞)을 혜민원 참서관에 임용하고, 최성오(崔星五), 윤영직(尹永稷), 강도순(康度淳)을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송종인(宋琮仁)을 인천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主事)에 임용하고, 고윤두(高允枓)를 길주감리서 주사에 임용하고, 김필규(金必圭)를 내부 주사에 임용하였다.</td><td>〈○〉 詔曰, 正三品申政均任秘書院丞, 秘書院丞沈啓澤兼任太醫院少卿, 朴仁成·朴義成·吉漢植·金允培·玄燦鳳·申鶴均任水輪院主事, 柳明林任淑陵參奉, 李根俊·崔丙益·朴基性·李晉九·金錫宗·李綱夏·曺容承·金履鏞任惠民院參書官, 崔星五·尹永稷·康度淳任中樞院議官, 宋琮仁任仁川監理署主事, 高允枓任吉州監理署主事, 金必圭任內部主事, 濟州牧主事金貞遠依願免本官, 洪淳元任濟州牧主事, 宋淳協任外部參書官, 金永淳任漢城府裁判所主事, 內部參書官閔城鎬依願免本官。</td></tr>
<tr><td>  </td><td> 
光武六年壬寅七月十九日丁丑 陽曆八月二十二日</td></tr>
</table>

연섭 輦涉, 27세, 자 태호(台浩), 1942년생, 계림플라자 대표, 대종회 부회장

병규 炳奎, 28세, 1940년생, 병사공파종친회장, 대구종친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대열 大烈, 30세, 1958년생, 대송산업 대표, 대종회 부회장

성환 成煥, 31세, 1929년생, 부산종친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기환 伎煥, 31세. 1959년생
청와대 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 대종회 고문

경대 炅大, 25세, 1940년생, 경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동수 東洙, 28세, 1952년생, 성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상빈 相彬, 28세, 1960년생, 대종회 이사

영복 泳福, 29세. 1943년생, 국회의원 보좌관, 대종회 이사

영홍 泳洪, 29세. 영복泳福의 동생
1946년생 영남대 의료원 소식지 편집위원, 사진작가, 대종회 이사

영곤 泳坤, 29세, 1951년생, 삼성정밀화학 근무, 대종회 이사

동원 東元, 29세, 1948년생, 자 동환(東煥), 은행근무, 대종회 이사

경룡 炅龍, 29세, 1948년생, 대종회 이사

재열 在烈, 29세, 1951년생, 양산CC, 대종회 이사

박렬 博烈, 30세, 1945년생, 대종회 이사

철환 喆煥, 31세, 1954년생, 교육직 부이사관, 대종회

석환 碩煥, 31세, 1952년생, 대종회 이사

수환 守煥, 31세, 1950년생, 운암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광환 光煥, 31세, 1962년생, 대종회 이사

대용 大龍, 31세, 1959년생, 삼성반도체 근무, 대종회 이사

성용 成龍, 31세, 1956년생, 대종회